

'6 대 4' 민주당 수용 실낱 희망

(의사 결정·심의기구 구성 비율)

신당-민주 통합협상 막판 대타협 가능성... 늦어도 오늘 매듭지어야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와 통합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양당간 막판 대타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유연한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이 민주·개혁세력의 집권을 명분으로 한 달 더 양보, 의사 결정 및 심의기구 구성에서 6 대 4의 비율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민주당 협상 대표인 최인기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는 통합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상태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밤 민주당 측 협상 대표인 문희상 의원과 막판 타협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인기 원내대표는 또한, "당 대표와 후보가 결정된 합의 내용을 당내의 각 계파가 연합군을 조성해 뒤엎은 정당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그러나 중도민주개혁 세력의 집권과 호남 정치의 미래를 위해 막판까지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당의 통합 일정상 오는 22~23일 이틀간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하고 대선 후보 등록 전인 24일까지 선관위에서 합당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합 협상은 늦어도 21일까지 매듭지

어져야 한다. 통합까지는 단 하루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18대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둔 신당 내부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민주당도 신당 측의 '합의 파기'에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통합 협상의 성사 가능성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독자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중앙당사 앞에서 '사기정당 배신정당 통합합의 파기 규탄대회'를 열어 신당 측의 합의 파기를 강력 비난했다.

신당 내부에서는 통합에 적극적인 정동영 후보 진영과 소극적인 민주당 탈당파 및 386 초·재선 그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크쇼에서 "협상이라는 게 막바지에 가

면 밀고 당기기와 진통이 있으며 (민주당과의 통합은) 된다고 생각한다"며 "힘을 모아도 모자라는 데 대통합의 대의 앞에 모두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에 부정적인 신당의 핵심 관계자는 "이미 통합은 물 건너간 상황"이라며 "이제 통합보다는 대선 막판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이인제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과의 합당 결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비자금 일부가 내게 온 것"

이용철 前청와대 법무비서관 '돈다발 삼성물산서 나온 듯'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돈다발 종이권에 '서울은행 분당지점'이라고 적힌 점과 선물상자에 '이용철(5)'라고 적힌 점을 근거로 들어 삼성의 로비 사실을 강하게 주장했다. <연합뉴스>

삼성의 청와대 로비 의혹을 공개한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20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신에게 전달된 '돈다발 명절선물'은 개인 차원의 뇌물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제공된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2004년 1월 삼성전자 소속 이경훈 변호사의 명의로 현금 500만원이 명절선물을 모르고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사실을 공개했으나, 삼성 측은 '회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는 바이다.

이 전 비서관은 "500만원은 개인 차원에서는 큰 돈인데 그런 액수를 제게 줘야 할 개인적인 동기가 없었다. 선물상자에 '이용철(5)'라고 적혀

있다. 개인적인 뇌물이라면 그런 결별 필요 없다. 그럴 때 보내야 하는데 실수로 남아있었던 것이다"라며 회사 차원의 뇌물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또 현금다발이 삼성물산의 비자금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과 관련, "돈다발을 묶은 때에 2002년 12

월 이후 하나은행으로 합병된 '서울은행 분당지점'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며 "서울은행 분당지점 근처에 큰 회사는 삼성물산이니까 그렇게 추측하는 게 무리는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선물을 받았을 당시 일을 끝바로 폭로하지 못한 것은 "차떼기 운운하며 전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뇌물을 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거대조직을 상대로 감추지 용기가 안났기 때문"이라며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없었다면 3년이나 지난 지금 공개할 수 없었을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과 사법고시 합격 후 10여년간 시민단체 활동에 전념했다는 이 전 비서관은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계기이자 전환점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실제적 진실 규명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개인적인 바람을 밝혔다. <연합뉴스>

금감원, 삼성 비자금 관련 우리銀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 김대평 부원장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우리은행의 자체검사 보고서를 받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

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검사 시기와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이번 검사는 김용철 변호사 본인이 지점을 방문했는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우리은행이 문제가 된 3개 계좌에 대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사본을 보유하고 있지만 은행 지점 담당자는 김 변호사 본인의 방문 여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국현 후보 단일화 논의 마음여나

신당 전남도의원 통합 촉구

정동영 후보 단일화 제의에 공개토론회 역제의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후보 단일화 공식 논의 제의에 "공개 토론회를 하고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의 공과 등을 포함한 단일화 문제를 토론하자"고 역제의했다.

그동안 단일화에 부정적이었던 문 후보로서는 진일보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신당-민주당 간 통합 및 단일화 논의가 주춤거리던 사이에 정동영, 문국현 후보 간 후보단일화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물론 문 후보는 "부도난 기업에 어

떻게 투자하겠느냐. 실정된 사람들과 단일화하기를 원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정 후보에게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후보사퇴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표면적으로는 정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그는 "정 후보가 (사퇴) 요청에 동의하기 힘들다면 공개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말해 단일화 논의의 가능성을 열었다.

문 후보의 이날 사퇴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단일화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모순처럼 들린다.

문제는 문 후보의 현 상태, 지지를

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은 데다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의 출마로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KBS와 MBC는 대선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TV 토론'의 대상을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후보로 제한했다.

따라서 문 후보가 단일화 카드를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은 여론의 복판으로 들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우원식 우상호 이인영 의원 등 초·재선 38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 후보와 문 후보가 '연합정부' 구성에 합의한 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이 20일 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표 강우원(영암1) 의원 등 도의원 24명은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평화 개혁세력은 조건없는 통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와 통합 없이 대선을 치렀다가 실패할 경우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대죄를 짓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도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불참했으며, 민주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이영운(진도2) 의원이 참석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 신설학교 건축비 '천차만별'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광주시의회는 20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했다. 주요 감사 지적 내용을 요약한다.

◇당연퇴직 대상 교육공무원 10년 간 근무=광주시의회 김후진(신당·북구2)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당연퇴직해야 할 교육공무원들이 교육청의 감독소홀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계속 근무해왔다"며 근무기간 확립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울타리 지난 3월에야 퇴직조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씨(가능8급)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난 1998년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가능8급)는 특가법 위반(도주차량)으로 지난 200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교사인 C씨는 역시 특가법 위반으로 2004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올해 초까지 계속 근무해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형사사건 위반자의 경우 검찰에서 통보받지 않으면 처벌을 취하는데 이들은 조사 당시 직업을 속여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규모 학교 건축비 최고 17억 차이=광주시의회 유재신(민주·광산2) 의원은 "최근 광주시내 신축학교의 경우 동일한 학급, 동일한 연도에 개교했음에도 건축비용이 최고 17억원이나 차이가 난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04년 3월 개교

한 광산구 S중과 또 다른 S중의 경우 30학급으로 동일하게 개교했음에도 82억원과 99억원을 각각 집행해 17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또 2006년 3월 개교한 J중은 교육부 교부액이 84억원이었는데 집행액은 9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같은해 개교한 B초등학교는 교부액이 96억원이었는데 집행액은 71억원으로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소방차 10대 중 3대 5분내 현장 도착 못해=광주시의회 나종천(민주·남구2) 의원은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말 현재까지 출동한 전체 소방차량 가운데 5분내 현장에 도착한 경우는 69.1%(684건)에 불과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마지막 남은 소나무 고(古)목재로 만든 **다심마루** 공장직판

[다심마루는 소나무로만 제작하는 진품가구 생산업체입니다.]

3부-내선방수
☎(062) 385-9957

다심마루

행복하고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경우엔 (여의) 고객들은 꼭 지켜주세요!

▶ 다심마루는 소나무로만 제작하는 진품가구 생산업체입니다.
▶ 다심마루는 소나무로만 제작하는 진품가구 생산업체입니다.
▶ 다심마루는 소나무로만 제작하는 진품가구 생산업체입니다.

다심마루